

지역 매 아리



정읍시농기센터, '한마음 모임체' 선진 감귤 재배농가서 현장교육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육성한 '한마음 감소농 자율학습 모임체(이하 한마음 모임체, 대표 허철원, 9명)'가 17일 아열대 작물인 감귤 재배농가에서 현장교육을 가졌다.

이날 8명의 회원들은 완주군의 농가를 찾아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재배요령 등을 설명 듣고 농장을 둘러봤다.

한마음 모임체는 지난 2011년부터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감소농(強小農))' 육성을 위해 실시한 감소농에 참여한 교육생들이 2014년 자율적으로 결성한 모임체다.

회원들은 결성 이후 4년 동안 경쟁력 있는 특수 작물 개발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매월 둘째 주 월요일 모임을 갖고 상호 간 크로스 컨설팅을 가짐은 물론 특수 작물 관련 토론과 연구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것. 그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6년에는 보라농(일명 왕까마중)을 공동재배해 왕까마중 농축액, 분말 등의 상품 개발을 시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설명회

고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임소연)가 흥덕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선정마을 33곳 대표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은 고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전라북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한국자살예방협회가 함께 음독자살에 취약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농약에 대한 접근성을 통제하여 지역 내 자살예방 및 생명사랑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고창군은 흥덕면 33개 마을 500가구에 보관함을 보급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는 2018년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 계획 및 일정, 마을별 협조사항 등 논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각 마을별로 방문하여 주민들에게도 사업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미래 청사진 공모전

시, 내달 6일까지 정읍발전 시민아이디어 접수 1인 1건, 창의성 · 경제성 · 실용성 등 기준 선정

정읍시가 정읍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과 함께 미래 청사진을 모색하고 있다. 시가 이달 15일부터 내달 6일까지 정읍시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와 관련 시는 "시민과 국민들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해 정읍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분야는 크게 일반국민과 공무원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일반국민 분야 대상은 ▲지속가

능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정읍의 미래인 청년, 교육, 복지, 인구정책 분야 활성화 방안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지역 부가가치 창출 방안 ▲문화·관광 분야 활성화 방안 정책 제안 ▲정읍시가 채택 가능한 자유로운 정책 제안 등이다. 또 공무원 분야는 ▲일하는 방식 개선과 관련된 아이디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조 직문화 개선 방안 등이다.

공모를 희망하는 사람은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홈페이지를 이용(국민신문고→국민제안→공모 제안→정읍시 공모)하거나 우편(우편번호 56180 전북 정읍시 중정로 234, 정읍시청 기획예산실)이나 팩

스(정읍시 기획예산실, 063-539-0504)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는 1인 1건(먼저 접수된 제안만 인정)으로 제한된다. 우편은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기타 방법은 접수 마감일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다.

시는 접수된 제안을 대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창의성과 경제성, 실용성 등을 기준으로 엄정한 심사를 한 후 우수 제안을 선정한다. 우수작은 7월 말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우수와 우수 등 등급에 따라 시장표창과 소정의 부상금도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정읍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속가능한 정읍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선운산도립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

고창군, 3억 8000만원 투입... 오는 6월까지 추진

고창군(군수 권한대행 이길수)이 3억 8000만원을 투입해 오는 6월까지 선운산도립공원에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응모해 선정되었으며, 산림복지진흥원의 복권자금 지원을 받아 추진한다.

녹색자금(복권기금) 지원사업은 교통약자층(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에 다니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목재 데크 등을 설치하여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는 복지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선운산도립공원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관광 취약계층이 그간 접근하기 어려웠던 선운산의 자연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녹색자금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신뢰 · 혁신의 정읍시정 펼쳐 으뜸가는 정읍시 만들겠다"

김석철 정읍시장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김석철 예비후보는 17일 "정읍시장 후보 재경선에서는 지난 경선과정에서 벗어났던 낡고 부패한 구태정치가 재현해서는 안된다"고 들고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갈 후보로서 품위를 지켜 정경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은 새 시대를 맞아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문재인정부와 우리 당의 정치철학과 맞닿아있다"면서 "정읍시민들이 간절

히 바라는 지역발전도 적폐청산이 선행되어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경선 내내 괴물했던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는 사실로 확인되고 있으며 나머지 사항도 곧 검찰조사에서 실제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 "당 최고위원회의 중요한 결정 직전 한 지역신문에 정읍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다는 허위사실이 보도된바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음해로 의심받을 행위로서 정읍선관위 확인결과 오보로 판명됨에 따라 해당기자에 사과문 게재 요구와



함께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소통과 화합, 강한 힘을 가진 새 리더로서 실현가능한 비전 제시와 본인만의 탄탄한 중앙인맥을 바탕으로 신뢰와 혁신의 정읍시정을 펼쳐 으뜸가는 정읍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사회복지사 확충 등 사각지대 없는 복지공약 발표

권익현 부안군수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권익현 부안군수 예비후보는 사회복지사 확충 등 사각지대 없는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권익현 예비후보는 17일 일선현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사회복지사 확충과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제 운영 등을 공약했다.

특히 권익현 예비후보는 "사회복지사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다양한 복지혜택이 가고 있지만 정작 그들에게 복지를 실현하는 사회복지종사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복지가 열악하다"며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를 늘리고 경제적 해



택이 돌아가는 복지포인트제를 운영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정책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권 예비후보는 "사회복지시설이 부안을 일대에 집중돼 있다"며 "변산과 격포, 곰소, 줄포 등 사회복지시설이 취약해 혜택 받지 못하는 곳에 복지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 "그간 많은 요구에도 이행되지 못하고 있던 '장애인전용체육관'도 반드시 설치하여 장애인의 체력증진과 신체기능회복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대학 전학년 반값등록금 실현할 것"

김종규 부안군수 예비후보

부안군수 무소속 김종규 후보는 17일 부안여자고등학교 학생운동을 찾아 학생 및 교사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대학 전 학년 전학기 반값등록금 실현 등 민선 7기 장학제도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김종규 후보는 "민선 6기 4년 동안 '커피 두잔 값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실현했다"며 "민선 7기에는 현재 7008명인 부안군 나누미농장학재단 정기후원회원을 1만 명으로 확대해 대학 전 학년 전학기 반값등록금 지급으로 무상교육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김종규 후보는 "완전한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축하



금 20만 원, 중학교 신입생 입학장학금 30만 원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며 "현재 20만 원 수준인 고등학생 신입생 입학장학금도 5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김종규 후보는 "사회에 일찍 진출하는 비진학 학생에게도 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학원비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부안에서 공부한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더불어 잘 사는 사회 만드는데 기여하겠다"

정상섭 정읍시의원 예비후보

정읍시 시의회의원 사선거구(시기동, 초산동, 상교동) 선거에 출마한 정상섭 시의원의 예비후보가 오는 20일 오후 3시에 시기현대아파트 앞 샘골 마트 옆 건물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정상섭 예비후보는 "상식과 정의,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민생과 생활 정치의 실현을 통해 지역민들께 희망을 주고 주민의 주권에 의한 주민을 위한 생활정치와 민생정치에 최대 역점을 두고 주민의 복리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예비후보는 "초산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체육회 총무를 맡아 지역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의 현안사업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지역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고 싶다"고 하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Advertisement for 'Im-sil Cheese' (임실치즈) featuring various cheese products and a background image of a cheese factory building. Text includes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and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